

민족지(ethnography)로서

게일 루빈의 『일탈』 읽기

: 게일 루빈, 임옥희·조혜영·신혜수·허윤 역,

『일탈 *Deviations: A Gayle Rubin Reader*』, 현실문화, 2015.

오김숙이

지금 여기 성(sex)을 사유할 때

우리사회에서 성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한통속으로 취급되고 거기서 우리의 사유는 멈춘다. 또한 성(sex)에 대한 사유는 심히 불온하다. 성은 대체로 수상쩍으며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여겨진다.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성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낙인찍힌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 ‘좌파 변태 동성애자의 시위’, ‘야동, 음란한 포르노’, ‘범죄의 온상 성매매’... 성과 연루된다면 불온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수많은 ‘전쟁’이 치러진다. 성범죄와의 전쟁, 성매매와의 전쟁, 포르노와의 전쟁.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성과 연루된 사람이라면 모두 ‘일탈자’로 탄압받기 십상이다. 성폭력과 합의에 의한 섹스에 대한 구분마저 미약하다. 그야말로 성은 온통 문제 영역으로 사유된다. 온당한 성은 오로지 결혼한 이성애자들의 침실에만 있다고 상상될 뿐이다.

이 문제 영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두고 페미니즘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1970~80년대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

이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페미니스트 ‘성 전쟁’(sex war)이다. 전쟁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도 그 싸움의 격렬함과 그로 인한 상처와 건널 수 없는 감정적·이론적 갈등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20여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펼쳐진 격론의 상흔과 그 깊은 갈등의 내막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문제에 관한 갈등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게일 루빈의 『일탈』은 지난 40여년 동안 이를 계보학적으로 쫓고 연결하고 분리하며 성 변이 또는 일탈자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에 맞서기 위해 이론을 생산해왔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어떠할까. 한국의 페미니즘에서도 격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 전쟁’에 비하면 덜 전면적이고 덜 격렬할지는 몰라도, 2000년대 들어 성에 대한 사유를 둘러싼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게일 루빈이 지적한 것처럼, 페미니즘 진영 내부의 성 공황으로 인한 포르노그래피, 매춘, 도박 뿐 아니라 트랜스섹슈얼리티와 동성애를 포함한 문제들에 관한 반동적 유독함은 지금 여기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일어난 성노동/매춘에 관한 격론이 이미 지나간, 그 첫 번째 파고이다. 이 전투는 당시 1~2년 동안 맹위를 떨치다가 차츰 수그러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동성애자 결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시민권을 둘러싼 격론이 현재 높게 일렁이는 두 번째 파고이다. 그밖에 미국의 경우처럼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전투가 가시화될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에 대한 철저한 이중성 때문이다. 수많은 포르노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향유되고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포르노’라는 사회적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그 이슈를 공론장으로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지난 9월에 출간된 게일 루빈의 『일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선집이 출간된 지 2주 만에 초판 1쇄 1000부 완판을 기록하였고, 한국 출간을 기념해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15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¹⁾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환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설마, 혹시라도 성을 본격적으로 사유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느 퀴어 페미니스트 종족의 민족지

게일 루빈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쓴 두 편의 논문으로 젠더이론과 섹슈얼리티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75년에 발표한 「여성거래」는 여성억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 페미니즘 이론 형성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당대 굵직한 사회분석 이론인 맑시즘의 재생산 논의,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 이론,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분석을 검토하며 여성억압의 원인을 섹스/젠더 체계로 밝히고 페미니즘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게일 루빈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작업은 1960년대 말 신좌파를 넘어 페미니즘으로 향한 뒤 모색해온 사유의 결실이었다. 젠더는 그 이전에도 사용된 개념이지만, 게일 루빈은 여성의 종속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산물임을 밝히는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페미니즘 사유 틀을 구축하였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82년에 게일 루빈은 「성을 사유하기」를 발표하며 또 다른 이론 영역을 구축하며 젠더이론을 넘어 이동한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페미니즘이 성적 하위계층에 대한 탄압과 성불평등에 맞서기보다 동조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젠더이론과 분리된 급진적 섹슈얼리티이론을 주창하였다. 이는 그가 사도마조히스트 레즈비언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역사를 설명할 언어를 찾아 떠난 여정이자, 특정한 성관계에만 특권을 부여하며 나머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바라본 페미니즘 내부의 성 공황을 당혹스럽게 마주하며 버려낸 이론이다. 페미니

1) 한겨레신문 2015년 9월 29일자 기사, '성적 반체제 페미니스트' 루빈, 그는 폭탄인가 폭죽인가(이유진 기자). 그 밖에도, 2015년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되었다.

즘과 성 억압에 대한 급진 이론의 관계는, 젠더구조를 다루는데 무능한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침이다.

『일탈』 읽기의 즐거움도 그 의미만큼이나 크다. 명쾌하고 정교한 사유는 읽는 이에게 시원함과 통쾌함마저 준다. 겁 많고 소심한 연구자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리만족이 무지 큰 것이다. 그는 성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성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탄압받으며 그 현장에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대신 묵묵히 성 일탈자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억압을 설명할 언어를 다듬었다. 그래서 『일탈』은 게일 루빈이 퀴어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로서 40여년에 걸친 학문 여정을 자세히 기록한 ‘자기재현의 민족지’²⁾로 읽힌다. 내게 게일 루빈의 『일탈』이 특별한 이유다.

그는 커밍아웃한 섹슈얼리티 정체성과 소아성애적 성향에 대한 발언으로 도덕성 십자군들과 격전을 치르며, 그 과정을 논문이란 언어로 기록하였다. 이 민족지에는 그가 살아온 특정한 세계의 모습이 함께 펼쳐진다. 게일 루빈이 살아낸 학문적, 사회적 세계가 논문의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에서 성 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간이고, 공간적으로는 미국 사회 전반 또는 페미니즘과 퀴어 세계라는 현지(field)이다. 민족지는 인류학자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특정한 문화에 대해 기술해놓은 글이다.³⁾ 게일 루빈의 논문들은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어 서로를 보충하며 하나의 민족지를 구성한다. 『일탈』은 게일 루빈이 살아온 특정한 문화, 즉 사도마조히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서 살아온 세계에 대한 ‘민족지’로 읽기에 충분하다. 게일 루빈과 그를 포함한 특정한 페미니스트 종족에 관한 민족지 말이다.

2) 『일탈』 출간기념 라운드테이블 패널이었던 김현미 교수가 한 발언에서 가져온 말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이 글을 쓰던 중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따왔다. 앞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3) 홍석준, 「현장으로 가자」,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43쪽.

특권화에 대한 경계, 계보, 기억하기

사유의 과정과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이 루빈의 글쓰기 방식은 『일탈』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이다. 그는 자신이 사유를 해온 과정을 드러내고자 지우고 다시 쓴 흔적, 보텐 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기회가 되는대로 그 맥락을 설명한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 재고나 후기, 추기, 반추 같은 단어가 많다. 그는 자신의 논문이 지닌 한계나 오인의 지점을 지워버리는 대신, 그것을 해명하고 문제의식을 확장해가며 후속 작업을 했다. 그래서 각 논문을 쓴 맥락이나 동기, 논문 사이의 연결 관계도 명확하다.

이 같은 글쓰기 방식은 각주달기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사유가 놓인 위치와 한계를 다시 각주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12장 버틀러와 인터뷰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공동체가 현대사회에서 갖게 된 친족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해, 자신이 동성 결혼 이슈와 그 구체적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각주에 적어놓았다. 이는 단지 학자로서의 성실함이나 이론적 강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바로 특권화에 대한 경계가 낳은 글쓰기 방법론이라고 할 만하다.

또 게이 루빈만큼 이론적 횡단의 과정과 맥락을 잘 보여주는 이론가도 없을 것이다. 『일탈』 읽기는 그가 페미니즘에서 퀴어 이론으로 횡단하게 된 맥락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버틀러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여성 거래」에서 「성을 사유하기」로 ‘입장을 바꿨는가’ 묻지만 게이 루빈의 대답은 이를 비껴나간다. 그는 섹스/젠더 체계로 여성억압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나 급진적 섹슈얼리티 이론을 주창할 때나, 이론적 보편주의로 하나의 분석도구를 특권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했을 따름이다. 즉,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그가 대답하듯, 사회적, 정치적 기후변화에 대해 응답했을 뿐이다. 그가 속한 세계가 어느새 젠더이론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페미니즘 정론’이 성을 억압하는 풍경으로 바뀌었고, 그는 그것을 사유·비판하기 위해 섹슈얼리티이론을 제출한다. 그렇게

루빈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습을 ‘역사적 실재’로 모습을 드러낸 사상과 이론에 직면하고 대결하며, 어쩌면 제자리에서, 분석에 몰두한 것인지 모른다.

특권화에 대한 경계는 선집 여기저기에 묻어나는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틀러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 1970년대에 합의된 섹스를 하는 게이를 체포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고 매춘을 도덕적 이슈로 다루며 낙인을 유지하는 등 ‘전형적인 페미니스트들이 특정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은 성소수자와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을 의미했다. 그는 레즈비어리즘과 성 다양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또 ‘성 일탈자’라는 낙인과 탄압을 넘어 자기 존재의 정당함을 설명할 이론으로, 성적 다원주의와 함께 이론적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이렇듯 특권화하려는 모든 시도, 그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반박과 경계는 게일 루빈의 학문 여정을 이끄는 힘이자 존재의 기반이다.

게일 루빈은 ‘자신의 역사를 확실하게 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자기 역사를 잃는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현장연구와 역사화작업으로 퀴어 지식에 대한 망각과 재발견이 반복되는 데자뷰를 넘어서고 있다. 레즈비언이나 게이, 사도마조히스트, 가죽족 같은 주변적이고 지워진 존재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 낙인에 물들어 있거나, 스스로 하위문화에 대한 지식을 생산할 지라도 망각되기 쉽다. 그래서 퀴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성적 하층민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성적 하위문화를 연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또 퀴어 지식에 대한 서지를 확인하고 빠진 목록을 기입하고 바로잡으며 역사를 촘촘하게 기록한다. 낙인찍힌 존재들에 대한 당대의 ‘오도된, 위험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보학적 논의가 유용하다. 당대의 지식이 오인하거나 혼용하며 악마화하는 지점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가며 논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와 매춘을 뭉뚱그리고 혼용하는 당대의 담론을 반박하기 위해 18세기 서구 인신매매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같은 혼용이 언제 어떻게 비롯되어 이어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식이다.

특권화를 경계하며 자기재현의 민족지를 기록해온 게일 루빈의 작업은 우리사회의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이뤄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에서는 ‘새빨간’ 새누리당이 ‘복지공약’과 ‘노동개혁’을, 56년 동안 수구(守舊)하며 이어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변혁’과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⁴⁾ 등 온갖 수사가 그 의미와 계보를 상실한 채 합종연횡하고 있다. 또 모두가 불안에 붙들린 채 살벌한 경쟁 속에서 성과와 실적내기에 바빠 다른 시간이나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학문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등재저널 논문편수와 연구실적을 요구받으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학문의 계보나 자기재현의 진실성 따위는 따질 겨를이 없다. 그저 이론은 유행을 따르고 맥락을 상실해간다.

급진적 젠더정치의 가능성, 메갈리아의 딸들

2015년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여성혐오에 대한 대대적 비판과 ‘메갈리아 딸들’의 등장이다. 이 운동은 인터넷에서 여성혐오 발언과 이미지에 문제제기를 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화력’까지 보여주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여성혐오는 그 양상이 매우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어험험’ 행동⁵⁾과 ‘메갈리아의 딸들’은 자발적이고 집단적 페미니즘 의식의 발현이자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의 등장이란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들이 보여준 활동은 커다란 가능성과 함께 한계 또한 시사

4) 지난 10월 29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여성, 사회변혁을 이끈다! 한번도 평화통일, 여성의 힘으로!>이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으며, 이대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진입을 막는 반대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다.

5)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의미로 ‘어험험’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칭한다.

한다. 마사 너스바움이 지적하듯, 혐오는 역사 속에서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혐오의 대상으로는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계급 사람들, 특정 인종, 특정 종교신자 등이 대표적이며, 그들에게는 악취, 부패, 불결함, 점액성 등 혐오의 속성들이 투영되었다.⁶⁾ ‘여혐혐’의 반격은 혐오에 대한 ‘되비추기’, 미러링을 즉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혐오 행위와 혐오 발화자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큰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혐오집단을 인지하며 공통된 투쟁의 맥락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피해자화 전략에 머물며 이분법적 젠더구도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

동시에, 이 운동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해체·재구성하며 이분법적 젠더 구분을 넘어설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여성혐오는 ‘남성’이 보편적 인간으로 상상되고 유일한 기준으로 작동되어 온 사회의식의 반영이며, 여혐혐은 그 기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메갈리아 딸들의 운동은 그동안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서 의제로 삼은 ‘차별’, ‘불평등’, ‘인권침해’보다 더욱 넓고 깊게 ‘문화’ 전반을 타겟으로 한다. 즉, 이 운동은 사람들의 심층적인 의식과 일상문화를 구성해온 젠더의식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며 기존의 젠더정치와 다른 ‘급진적 젠더정치’를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화를 기호적 실천과 의미생산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문화가 표현, 재현 등 상징적 작용과 행위가 집중되어 있는 장, 즉 의미를 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넓게 보면 의미생산의 양식이고 의미는 문화적 실천의 생산물이다.⁷⁾ 여혐혐-미러링 놀이는 기준에 ‘여성’이라는 기호에 부착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그것을 ‘남성’에게 되비춘다. 미러링은 ‘남성’을 절대적인 자리가 아닌 상대적인 자리로 이동시켜 그 보편·유일이란 기준을 뒤흔든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

6)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09[2015].

7) 오김숙이, 『매춘의 사회적 낙인과 의미를 둘러싼 문화적 실천』, 『여/성이론』 제29호, 여이연, 2013, 5쪽.

과 ‘남성’이란 각 기호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와 이분법적 젠더구조는 재구성될 수 있다. 이 운동이 갖는 전면적 문화투쟁과 의미투쟁의 측면이다.

우리사회에서 기존의 젠더정치는 이분법적인 젠더 개념과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한 측면이 크다. 젠더 개념 자체는 생물학적 ‘양성’이란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젠더정치는 섹스 개념에 고착되어 있다. 이 젠더정치는 섹스 개념에 기대어 양성구도를 공고히 하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삼으며 기득권세력에게 승인받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가 들어가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는 공문을 보내 불거진 사건은 기존 젠더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은 단지 보수정치세력의 집권으로 이루어진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이분법적 젠더 개념, 즉 섹스 개념에 기댄 젠더정치와 페미니즘에 내재된 문제가 성소수자들의 즉각적 비판으로 드러나며 충돌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 양성이 아닌 다른 성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의 명칭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결정되었다.⁸⁾ 섹스 개념에 기댄 젠더정치에서 성소수자 여성의 배제는 예고된 결과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드러난 레즈비언 퀴어정치와 페미니즘정치 사이의 불화 또한 이 맥락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메갈리아 딸들의 급진적 젠더정치는 급진적 섹슈얼리티정치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까. 최근 이들이 보여준 행보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섹슈얼리티정치에 대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레즈비언이 고발한 게이 여성혐오에 대한 게시판 논쟁에서 게이 여성혐오를 비판하며 ‘레즈갓치’에 대한 환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도 여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분위기이다.⁹⁾ 이는 이

8) 자세한 내용과 경과, 비판에 대해서는 11월 27일에 열린 <성평등 정책·이론·운동의 방향과 미래 대토론회> 자료집, 나영정 등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9) 이에 대해서는 ‘메갈리아의 딸들’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다. megalian.com과

운동이 ‘여성’을 여성혐오의 대상이자 피해자라는 공통된 기반으로 인식하면서도, ‘여성’이라는 기호를 생물학적 섹스가 아닌 문화적 생산물로 보고 성 다양성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급진적 젠더정치가 급진적 섹슈얼리티정치와 만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게이에 대한 성적 낙인을 재생산하는 입장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그 한계도 드러난다.

다음으로 메갈리아의 딸들이 진행한 ‘소라넷폐지청원운동’으로 촉발된 공론장은 우리사회에서 방치되어온 성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성 다양성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섹슈얼리티정치의 현주소도 보여준다. 이 운동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져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관련 성폭력 범죄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터넷 서명게시판을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폐쇄를 제기하여 7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경찰수사 착수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먼저, 소라넷폐지의 근거는 ‘몰카 범죄의 온상’, 즉 ‘도촬과 유출된 성행위 영상’의 유포라는 문제이다. 메갈리아의 딸들은 직접 소라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몰카’ 게시물이 수만 건에 달함을 폭로하며, 범죄의 결과물인 몰카동영상이 이 사이트에서 유포·공유됨으로써 범죄와 연루됨을 증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음란 사이트’라는 점이다. 소라넷은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변태 성욕자들의 온상지’로 ‘완전한 박멸’이 제시된다. 이 때, ‘음란물’에서 ‘몰카’나 성폭력범죄의 결과가 아닌 포르노그래피가 따로 사유되거나, ‘변태 성욕자들’에서 성폭력범죄자가 아닌 SM, 스와핑 등의 ‘성 변이’나 성노동자가 따로 사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동안 소라넷을 위시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버젓이 이루어져온 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긴급함이, 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나 논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춘이나 다양한 성적 변이는 성폭력범죄와 따로 분리되어 논의되지 못한

여기에서 분리된 cafe.daum.net/megaldau 참고.

채 그 차이는 또다시 삭제된다. 섹슈얼리티의 위계질서에서 최하층에 놓인 성노동자나 다른 ‘성 일탈자’들은 성폭력범죄자들과는 다른 ‘변태 성욕자들’로 사유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 성을 사유할 때를 어찌 쉽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판타지와 실제 사이에서

클리퍼드 기어츠는 민족지학자의 능력이란 자신들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자기들이 본 것을 우리도 보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우리도 느끼며,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우리도 내릴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⁰⁾ 나는 성노동자를 만나며 현장연구를 진행해온 지 십년이 다 되어가지만, 내가 그 현장에서 보고 내린 결론을 설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기록하며 그곳에 계속 있기도 힘에 겨웠다.

한국에서 성노동자들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노동자 정체성을 선언하며 집단적으로 등장한 뒤 어렵게 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화와 인권침해적 단속으로 탄압받고 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 성노동을 둘러싼 격론은 잠잠해졌지만, 적대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¹¹⁾ 또 학술논문에서 성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여전히 위협되고 있다. 더러는 성노동 현장연구가 ‘선데이 서울’의 르포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날것의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연구에 대한 지원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동안 성노동자를 만나고 현장을 기웃거리며 내가 가진 편견을 깨고 함께 시민권을 모색하는 즐거움도 있었지만¹²⁾ 그 연구를 계속하며 살아가기는 혼자만의 사투처럼 느껴

10) 클리퍼드 기어츠, 김병화 역,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문학동네, 1988[2014], 28쪽.

11) 실제로 당시 공론장에 나서서 성노동을 주장한 연구자 중에는 반페미니즘적이라며 학술발표에서 보이콧을 당하거나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도 있다.

졌다. 그래서 2015년 한국사회에서 게일 루빈의 『일탈』에 대한 관심은 반가우면서도 낯설기만 하다.

얼마 전 참석한 학술대회¹³⁾에서는 많은 이들이 페미니즘을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사상과 이론으로 논하여 놀랍고도 인상적이었다. 어쩌면 혁명적 정동 비슷한 기운이 강했던 시절이 이미 오래 전 향수의 대상이 되어버린, ‘퇴행’과 ‘반동’의 시기를 살고 있어서 그 뜨거움이 더 놀라웠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한 줌의 희망, 어느 정도의 판타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유토피아적 상상과 낙관을 지워버린 페미니즘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물질 토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 기초한 변혁의 무기이기보다 소망충족적 판타지라면, 그 이론은 역사적 실재와는 더욱 거리가 멀 것이다.

메갈리아의 딸들이 보여준 급진적 젠더정치의 가능성은 게일 루빈이 중요하게 제기한 문화적 생산물로서 젠더 개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 급진적 젠더정치는 젠더 개념을 특권화하지 않으며, 이분법적 젠더 개념과 구조를 넘어 다양성을 향하는 젠더정치의 해체적 전망을 그릴 수 있다. 그 때 급진적 젠더정치는 급진적 섹슈얼리티정치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진적 젠더정치의 가능성과 한계가 역사적 실재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나는 이 운동이 가진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의 소소한 개입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게일 루빈이 『일탈』 서론 첫머리에 쓴 것처럼, 텍스트는 특정한 역사적 계기와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지평과 더불어 생산된다. 그러니 단순히 계급과 젠더와 섹슈얼리티 등의 범주를 곱하거나 교차시키는 것으로 페미니즘 판타지와 실재 사이의 간극을 메우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12) 내가 소라넷 사이트를 알게 된 경로 또한 4, 5년 전쯤에 만난 성노동자를 통해서였다. 그는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며 성노동업소 등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참고하였다.

13) 12월 5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퇴행의 시대, 페미니즘 급진화하기>라는 주제로 연 학술행사이다. 발표내용은 『여/성이론』 제33호 기획특집에서 일부 참고할 수 있다.

나도 페미니즘에 대한 낙관과 신념으로 유토피아적 상상을 꿈꿨던 적이 있었다. 맑스주의운동의 남성중심성을 뒤늦게 깨닫고 대립하다 배신감을 느끼며 페미니즘운동을 하게 되면서였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적 꿈은 여성운동 과정과 성노동을 둘러싼 격론을 겪으며 다시 깨져나갔다. 페미니즘이 걸어온 역사적 실재와 페미니즘에 투사된 판타지 또한 맑스주의만큼이나 그 간극이 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질학을 즐기는 게일 루빈의 통찰을 빌리자면, 페미니즘이란 화석은 하나의 단일한 지층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성 억압을 분석하며 맞서 싸운 여러 지층들이 쌓인 퇴적물일 것이다. 또한 그 지층들은 자체의 힘으로 운동하고 또 서로 부딪히며 깎이고 쌓여갈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순전히 판타지거나 역사적 실재가 아니라, 판타지와 역사적 실재 사이를 진동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그러니 판타지와 역사적 실재 사이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말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40여 년 동안 페미니즘 판타지와 실재 사이에서 길을 걸어온 게일 루빈의 글을 읽으며 계속 걷는 법을 익혀보자.